광주 유일 6·25 전적지 옛 산동교 '관리 부실'

전시물 파손에 228m 구간 가로등 없어 야간 주민 불편
다리 폭도 좁아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등 안전사고 노출

"앞이 캄캄해서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인근에 공원이 위치해 있어 통행량도 많은데, 다리 한 가운데 돌덩이가 설치돼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지난 6일 밤 광주지역 유일의 6·25 전적지인 북구 동림동 옛 산동교.

북구와 광산구를 잇는 가교인 이 곳은 한 눈에 봐도 오래된 구조물이다. 날이 어두워지자 다리 끝자락이 희미하게 보일 만큼 캄캄했다.

광산구 신창동에서 북구 동림동 방면으로 이어지는 다리 위를 걷다보면 좌·우측에 '옛 산동교'의 역사와 마을 활동 사진 등이 전시돼 있다.

그러나 전시된 일부 작품은 파손돼 있거나, 벗겨져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다. 게다가 228m가량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비추는 가로등 또는 보안등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동림동 방면 다리 끝자락의 보안등 하나가 전부였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이곳을 지나던 한 행인이 반대편에서 오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부딪힐 뻔한 모습이 포착됐다.

다리 위 중앙에는 몇m 간격을 두고 조경물이 곳곳에 설치돼 있는데, 이 구간을 지날 경우 보행하는 넓이의 폭이 줄어들어 자전거와 충돌할 우려가 높아서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시민 박모(67)씨는 "주변에 공원이 위치해 있어 아침·저녁으로 이곳을 자주 걷곤 하는데, 밤에는 다리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아 불편할 때가 있었다"며 "다리를 비추는 불빛이 전혀 없어 가로등이라도 설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 기모(32)씨는 "인근 카페를 찾을 때마다 이곳 다리를 건너곤 한다. 운동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캄캄해서 작은 불이라도 켜놓으면 좋겠다"면서 "여름이 다가올수록 운동객과 자전거 통행량이 급증할텐데 시급히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불평했다.

주민 산책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주 북구 동림동 옛 산동교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주민들이 야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처럼 '옛 산동교'는 주변에 공원 등 근린시설이 조성돼 있어 운동코스로 인근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임에도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겪는 등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옛 산동교는 과거 교량으로 분류돼 차량들이 통행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폐교됐다. 이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다리 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명확한 구분이 없는데다, 오히려 다리 중앙에 조경물이 설치돼 있어 통행에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1950년 6·25 당시 광주지역 유일의 전적지였던 '옛 산동교'가 현재 동림동의 상징적인 장소인 만큼, 다리 곳곳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구는 옛 산동교 관리·점검을 1년에 2회 실시, 상·하반기로 나눠 3월·9월 중에 실시하고 있으며, 파손·침하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가로등 설치가 필요할 시에는 직접 현장에 나가 타당성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중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옛 산동교는 2011년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됐고, 폭 6m, 길이 228m의 다리다. 1950년 7월 군경합동부대가 북한군의 광주 점령을 막기 위해 첫 전투를 벌였던 광주지역의 유일한 6·25 전적지다. /김동수 기자

'5인 이상 금지' 위반 외국인 클럽 적발

집단파티 주최 측 등 과태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파티를 연 클럽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7일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출입국사무소와 경찰, 광산구청은 지난 5일 합동 계도 활동 중 광산구 산정동 한 클럽에서 집단파티를 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최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내려가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자 몽골 국적 등 외국인들이 지하 주점을 빌려 새벽까지 진행되는 집단파티를 개최했다.

이들 기관은 파티가 열리는 시각 해당 클럽을 찾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들에게 코로나19 외국인 무료 특별 검진과 불법 체류 통보 의무 면제 등을 안내한 뒤 5인 이상 모인 사람들을 해산하도록 했다.

광산구청은 5인 이상 모인 외국인과 주최 측 등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하고 경찰도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과거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과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밀집 지역을 지속적으로 계도·점검해 외국인 일탈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훈석 기자

서해해경청, 농무기 사고 예방 안전대책 마련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바다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3월부터 7월까지(농무기)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농무기는 시야 확보의 어려움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봄을 맞아 바다를 찾는 레저선박이나 행락객도 증가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5년간 해양 선박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4천649척 중 1천874척(40%)이 농무기에 발생했다.

농무기 사고 중에서도 시야 확보가 안될 정도로 안개가 자욱한 저시정(1㎞ 이하) 상태에서 189척(10%)의 선박 사고가 발생했다.

선박 종류별로는 어선 120척(63.5%), 레저선박 19척(10.1%), 낚시어선 13척(6.9%), 예부선 12척(6.3%) 등이다.

유형별로는 충돌·접촉(25.3%), 방향상실(20.1%) 등 시정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45.4% 차지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구조하기 위해 '2021년 농무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농무기 해역별 취약요소 분석을 반영한 사고 예방·대응 계획에 따라 경비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등 '사고다발해역'을 중점 관리한다.

'나홀로' 운항 등 사고에 취약한 레저선박과 여객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짙은 안개가 낀 바다에서는 무리한 선박 운항을 자제하고 안전장비를 갖추는 등 운항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보험금 타기 위해"…고의 차량 파손 일당 검거

완도경찰 "사기 의심시 적극 신고…근본 대책 절실"

건설기계를 이용해 고의로 차량을 파손한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완도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는 지난 6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32)씨와 보험담당자 B(40·여)씨, 포크레인기사 C(3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8월27일 완도 노화읍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차량을 전손처리하기로 마음먹고, C씨 소유의 건설기계(포크레인)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차량을 파손, 보험금 약 4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2020년 2월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고, 상대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운전자 D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D씨는 같은해 광주, 완도, 장흥에서 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및 상대 운전자들에게 2천200만원 상당의 보험금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경찰서 교통조사팀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 기자

삼촌과 조카가 편의점 종업원 납치 시도

새벽에 편의점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하려던 삼촌과 조카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함평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전 0시25분께 함평군의 한 편의점에서 괴한 2명이 흉기로 여종업원을 위협하고 술을 빼앗은 뒤 현금을 요구했다.

이들은 여종업원이 "돈이 없다"고 하자 신용카드를 요구했으며 "신용불량자"라고 하자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하려 했다.

여종업원은 차 문이 잠시 열린 틈을 타고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괴한들이 몰고 온 승용차를 전국에 수배하고 인근 광주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오전 1시40분께 수배된 승용차가 송정공원 앞에 주차된 것을 발견했으며, 추적 끝에 송정역 인근에서 A(53)씨와 B(40)씨를 붙잡아 함평 경찰에 인계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잘못된 사랑(?)

딱딱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개월 동안 음란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 협박한 3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

○…7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에 따르면 A(31)씨는 2019년 7월12일부터 지난해 5월1일까지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재판부는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재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 /오승지 기자

CMYK